

기

마음이 통하는
VOL.6



기획특집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한 정보통신의 발달사

KTTU FOCUS | NTT노동조합 사무국장 '노다 미나오' 인터뷰
글로벌 리포트 | 세계 각국에 부는 부자증세 바람
현장 24시 | 강북네트워크운용단 무선운용센터 엔지니어링4팀

길

마음이 통하는
VOL.6



우리는 늘 당신 편입니다

외국 영화를 볼 때면, 자주 듣게 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I proud of you."
 나는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라는 뜻이죠.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운을 북돋우거나 감동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그 가치와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부심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명백한 논리보다
 무형의 가치기준과 감정을 토대로 유발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은 동기부여를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선사하죠.
 자부심은 든든한 지원군이자 믿음직한 후견인인 셈입니다.

KT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내 편을 두었다는 기쁨.
 나를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다는 믿음.
 이것이 KT노동조합원의 자부심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뒤에는 늘 KT노동조합이 서 있겠습니다.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운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3년 2월 6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애드그린(주) 02-498-6254



04
KTTU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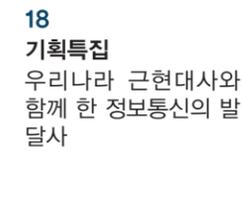


10
KTTU FOCUS
NTT노동조합 사무국장 '노다 미나오' 인터뷰

14
KTTU 클로즈업



01 2013
vol.06
02



18
기획특집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한 정보통신의 발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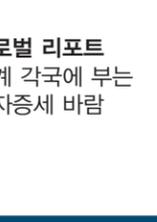


26
글로벌 리포트
세계 각국에 부는 부자증세 바람



22
노동계 이슈 01
2013년 새정부의 주요 노동현안

24
노동계 이슈 02
흔들리는 민주노총



28
현장 24시
강북네트워크운용단 무선운용센터 엔지니어링4팀



표지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 LTE를 개통한 강북엔지니어링4팀 류연길, 박상훈 조합원



32
그림과 대화하기

34
광고 및 독자퀴즈

KTTU News

2013년도 정기 지부대회 개최

지부운영 논의, 대의원 318명 및 3개 지부 지부장 선출

노동조합은 2월 5일(화) 전국적으로 2013년도 지부대회를 열고, 각 지부의 지난해 활동사항과 올해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일부 지부(보궐선거 3곳) 지부장 및 2013년 노동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선거를 진행, 총 318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입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발생 결의 등 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사지방본부 강남네트워크운용단지부를 찾은 정윤모 위원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속에서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현안이 환노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라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확실한 변수에 좌지우지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역량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2013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현상순회를 더욱 강화하여,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통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강남네트워크운용단지 지부대회 참석 이후 남수원 지부, 수원지부, 경기남부사업지원센터지부를 차례로 찾아 현장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부대회에 이은 12개 지방본부대의원대회는 오는 2월 26일(화)~28일(목) 중 지방본부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는 △2012년 지방본부 활동보고 △2013년 지방본부 사업계획 심의·의결 △2012년 지방본부 회계감사 보고 및 결산 등이 진행된다.

[지부장 보궐선거 결과]

- 호남선지부: 김정필
- 대구무선지부: 김경호
- 부산기장지부: 김경철

[2013년도 전국 대의원 명단]

■강북(32)

김재준(강북고객본부) 김준현(을지) 이창주(고양) 권병옥(광화문) 안병환(원호) 박경수(동대문) 류재율(의정부) 전영복(신촌) 이진구(파주) 진정현(구리) 손영국(월곡) 박용성(노원) 김동현(서대문) 정성호(남양주) 이주호(성수) 박종율(덕양) 박종국(광진) 김정호(도봉) 김종성(강북) 김성배(여의도) 하태쇠(중랑) 한귀영(동두천) 전용섭(은평) 정상길(포천) 황건선(양평) 이장환(가평) 정택근(전곡) 강재구(서울북부사업지원센터) 김명수(서울동부사업지원센터) 강윤식(서울중부사업지원센터) 유지영(경기북부사업지원센터) 변대성(고양사업지원센터)

■강남(29)

박정상(강동) 이종근(송파) 최영곤(가락) 유광섭(영동) 최연덕(서초) 박성순(양재) 김영선(과천) 이성규(신사) 전성욱(반포) 이봉규(서울강동사업지원센터) 정영근(서울강남사업지원센터) 오은호(수원) 신양호(남수원) 남기형(발안) 이창일(동수원) 조성명(용인) 남대경(수지) 이군상(평택) 이송찬(안성) 정상철(오산) 박현진(강남고객본부) 황윤구(경기남부사업지원센터) 김병수(성남) 오정근(경기광주) 이호근(하남) 박정배(분당) 한홍섭(여주) 김학능(이천) 이희용(경기동부사업지원센터)

■서부(35)

강일모(가양) 김희대(강서) 김혜광(목동) 안진홍(영등포) 최승태(개봉) 최중문(구로) 김영필(금천) 김진규(동작) 유희수(관악) 엄금용(대방) 최오회(안양) 임영락(서안양) 권용철(군포) 임종인(안산) 유광림(동안산) 신갑진(시흥) 박성산(부천) 차홍열(북부천) 민형식(부평) 김철호(김포) 김오철(계양) 이정각(인천) 정한교(주안) 이호영(백령) 박은규(연수) 김윤철(서인천) 송창환(인천공항) 한봉덕(강화) 유삼열(항동) 방동석(경기서부사업지원센터) 신기복(서울강서사업지원센터) 박태순(서울남부사업지원센터) 최희웅(인천사업지원센터) 김태영(부천사업지원센터) 정재욱(서부고객본부)

■부산(47)

명창욱(부산고객본부) 이영곤(창원) 황일용(김해) 정성민(마산) 임태복(남울산) 김성덕(금정) 김인제(울산) 강동만(진주) 김진용(사하) 최형진(서부산) 조현배(해운대) 김원용(거제) 고정규(구포) 이기곤(서면) 김동철(남부산) 서부기(양산) 이기학(동부산) 남상길(북부산) 박상일(미남) 인창연(대연) 백권춘(통영) 곽흥태(수영) 박하린(진해) 이식원(안양) 김석준(동울산) 권구호(사천) 황진한(밀양) 임옥정(영도) 이동근(중부산) 정원봉(강서) 남동현(함안) 김익중(거창) 진영권(창녕) 전영래(양정) 강기운(고성) 김지수(남해) 박종섭(합천) 이경복(하동) 김근식(함양) 김광희(산청) 윤해(의령) 손희동(서부산사업지원센터) 최용석(동래사업지원센터) 최영철(동부산사업지원센터) 백한준(울산사업지원센터) 표남진(경남사업지원센터) 박희철(진주사업지원센터)

■대구(37)

하중열(대구) 허운해(북대구) 정영식(서대구) 박순목(남대구) 하재훈(동대구) 안효정(달서) 김종우(수성) 정명호(왜관) 손의진(군위) 김성기(성주) 김주학(고령) 이선희(달성) 손상학(경산) 백명도(영천) 조창호(청도) 이정훈(대구고객본부) 이원종(포항) 황태중(울릉) 최진환(영덕) 전종호(울진) 김정훈(경주) 김동영(구미) 박명서(김천) 박병구(상주) 이찬원(안동) 권오용(영양) 장성구(청송) 송홍경(영주) 권혁만(의성) 이강희(봉화) 김상욱(문경) 윤원상(예천) 이종학(대구사업지원센터) 이준석(동대구사업지원센터) 주경문(포항사업지원센터) 김기섭(안동사업지원센터) 박병규(구미사업지원센터)

■본사(33)

김정권(SMBRC센터) 최종국(수납지원센터) 김철환(IMO운용센터) 봉미애(국제전화국) 이정현(기업고객센터) 이재수(부산고객센터) 박홍주(호남고객센터) 권승태(충청고객센터) 김용범(종합기술원) 김상현(중앙연구소) 남정현(유무선네트워크연구소) 송민관(무선네트워크본부) 이정석(엔지니어링단) 이희찬(네트워크관제센터) 최호규(IP/플랫폼운용센터) 허종욱(미디어운용센터) 안이호(국제통신센터) 이성동(부산국제센터) 임민수(네트워크기술지원본부) 이광수(강북네트워크운용단) 박철성(강북무선운용센터) 최희동(강원무선) 김성만(강남네트워크운용단) 윤웅현(강서무선운용센터) 허정식(강남무선네트워크) 박종복(충청네트워크운용단) 진주관(충청무선운용센터) 류재수(호남네트워크운용단) 차용대(대구네트워크운용단) 이상엽(부산네트워크운용단) 왕용길(부산무선운용센터) 천성영(인재개발원) 박종훈(물류센터)

■전남(25)

이인철(전남고객본부) 류철웅(북광주) 김광수(광산) 선종민(상무) 이동우(남광주) 이상도(광주) 정영근(나주) 정상준(담양) 강성봉(화순) 김원복(영광) 김영중(광주사업지원센터) 박철오(목포사업지원센터) 박상운(순천사업지원센터) 전남재(목포) 김진욱(순천) 김응연(여수) 심금식(광양) 채희원(해남) 김광주(완도) 김관민(고흥) 박진규(장흥) 김갑춘(무안) 김영관(강진) 정찬(영암) 김진성(진도)

■전북(13)

윤기성(전주) 진홍윤(남원) 노용환(익산) 김성수(군산) 이종구(북전주) 박충범(무주) 이광욱(정읍) 김덕경(부안) 송석호(고창) 정광모(김제) 황정택(전주사업지원센터) 박창규(익산사업지원센터) 박보민(전북고객본부)

■충남(28)

안상표(충남고객본부) 김경찬(대전) 김문철(신탄진) 윤은중(금산) 유종선(용천) 김명길(서대전) 이재철(계룡) 장대연(논산) 한금수(둔산) 임재한(북대전) 이영준(세종) 이광엽(유성) 나연철(공주) 박경순(천안) 조규정(남천안) 김성수(아산) 서종모(홍성) 이용을(청양) 이강석(예산) 이상호(태안) 김용길(부여) 김종래(서천) 장동인(서산) 윤은주(당진) 김남경(보령) 정학영(대전사업지원센터) 박찬국(천안사업지원센터) 김종규(홍성사업지원센터)

■충북(12)

이영무(청주) 장민철(진천) 장병기(증평) 이학승(서청주) 조동완(옥천) 손영택(영동) 최재용(충주) 이춘영(금왕) 김병대(제천) 장남전(충북고객본부) 김종원(청주사업지원센터) 김종성(충주사업지원센터)

■강원(22)

박준수(원주) 백승혁(횡성) 원남희(영월) 김진국(평창) 박영섭(정선) 이춘근(태백) 안상진(춘천) 황원중(화천) 김종호(양구) 이완기(인제) 윤필상(홍천) 김승규(철원) 이근재(강릉) 김창일(속초) 허윤규(양양) 박광호(고성) 박한수(동해) 연구선(삼척) 박재희(원주사업지원센터) 오홍주(강릉사업지원센터) 심창용(춘천사업지원센터) 김운수(강원고객본부)

■제주(5)

현성환(제주고객본부) 홍관표(제주) 최태중(신제주) 현승기(서귀포) 김희철(제주네트워크)

2013년 의료비 지원제도 변경안내

KT노동조합은 그동안 시행해왔던 의료비지원 제도를 2012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 시행해 본 결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대다수 조합원의 요청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의료비 지원제도로 아래와 같이 회귀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
 - ① 의료비지원 제도 변경 : 실손의료보험 ▶ **의료비지원제도로 변경**
 - ※ 단, 본인 입원의료는 실손 가입
 - ② 부모, 배우자, 자녀, **실손 입원의료 선택 가입**(본인 부담)
 - 희망자에 한하여 실손 입원의료 가입 기회 제공
- 대상** : BIT-ERP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사부, 시모, 장인, 장모 포함)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발생 의료비부터
 - ① 신청시기 : 2013년 2월 중순 이후(BIT 의료비 시스템 개발 후)
 - ※ 단, 직원입원을 포함한 가족실손의료보험은 동시기획을 통하여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변경 사유**
 - ① 의료비지원제도 변경(2012년) : 의료비지원제도 ▶ **실손의료보험 변경**
 - ② 시행상 문제점
 - 과거 수혜범위에 비해 높은 공제금액으로 인해 직원 불만 가중
 - 실손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였으나, 실손보험으로 중복수혜 불가
- 변경 내용**
 - ① **의료비지원제도 변경(2013년) : 실손의료보험 변경 ▶ 의료비 지원제도**
 - 단, 직원 입원 의료는 실손 가입
 - 대상 : 건보증에 등록된 본인,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
 - ②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실손의료 보험 선택 가입**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 실손보험 미가입자, 가입불가자 대상 선택권 부여
- 실손보험 세부내용**
 - ① 보장 항목 : 급여 및 비급여(출산도 포함)
 - 한방, 치과는 급여만 보장
 - 성형, 호르몬치료, 라식 등은 보장 불가
 - 기왕증도 보장 가능, 단 현재 질병/상해로 입원중인 것은 보장 불가
 - ※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보장 불가, 회사의료비지원과 중복보장 가능
 - ※ 실손 통원 의료 미가입 이유 : 손해를 낮아 보험 미가입 추진
 - 실 납입 보험료 대비 직원 손해가 약75% 수준
- 〈실손 입원의료보험 연간 추정 단가〉**
 - 부모(남 : 41~46만원), (여 : 32~35만원)
 - 배우자(남 : 7.6~8.6만원), (여 : 7.0~7.6만원)
 - 자녀(남 : 2.5~3.0만원), (여 : 1.4~2.0만원)
 - ※ 입원 의료비의 90% 보장(10% 본인 부담금)
 - ※ 보험 단가 실 가입자의 평균나이로 결정

구분 (지급주체)	의료비 지원(회사 지원)		실손입원의료 선택(본인 부담)	
	보험사	기금 or 예산	보험사	
제도	직원	입원의료 or 입원일단 택1	통원	-
	가족	X	입·통원	부모, 배우자, 자녀 실손 입원의료 선택 가입(본인 부담)
주요 내용	◎ 한달 가족승 3만원 초과금액 지원 - 급여항목 限(단, CT/MRI 촬영비 30% 지원) ◎ 한도 : 연간 1천만원(가족 승산)		◎ 질병/상해당 본인 부담금 10% 공제 후 90% 보장 - 급여/비급여 항목 ◎ 한도 : 질병/상해당 1천만원(개인별)	
비고	수혜의 보편성		실손보험 선택권 부여	

KT노동조합, 일본 NTT노동조합과 노동·통신 실무정책협의 개최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 양국 노동조합의 연대 등 주제별 심도 깊은 논의

KT노동조합은 일본의 NTT노동조합과 KT분당 본사 2층 회의실에서 1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무려 8시간에 걸쳐 릴레이 실무정책협의 를 가졌다. NTT노동조합은 총 조합원 수가 180,000여 명에 이르는 일본에서 가장 큰 통신노동조합이다. 이번 회의는 NTT노동조합이 지난 해 양 통신노조의 정책과 방향, 양국 노동·통신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다 미나오' 사무국장 등 4명의 NTT노동조합 조합간부는 28일 아침, KT노동조합 중앙본부를 방문해 정운모 위원장 및 중앙상무집행위 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협의를 시작했다. 정책협회는 ▲정년연장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과 노조의 대응 ▲통신사업자와 OTT 사업자 ▲유·무선통합 ▲ICT산업의 트렌드와 경영상의 과제를 테마로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처럼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공감한 뒤,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ICT산업, 모바일 데이터시장 성장에 주목
KT노동조합은 한국의 ICT산업의 현주소를 △스마트폰 대중화로 촉발된 이동통신사업자와 OTT사업자간 갈등, LTE경쟁 △유무선 통합이라는 통신사업 구조변화 △가상재화의 힘을 보여주는 콘텐츠 시대로의 서막 등으로 요약했다. NTT노동조합도 기존 고정전화 가입자 수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모바일 중심 통신시장에 대한 상황을 요약했고, 양 노동조합은 음성수입 저하를 데이터 수입으로 충당하는 현 통신사업자들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정년연장은 선택 아닌 '필수'
특히 지난해 일본은 연금수급연령과 실제정년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자 정년 65세 연장 법제화를 서둘렀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소요 재원은 기존 총 인건비 중 일부를 할애하여 60세~65세 임금을 충당키로 합의된 상황이다.

전문성 갖춘 통신노조 연대상징으로!
정운모 위원장은 "NTT노동조합과 KT노동조합은 2003년부터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포럼을 통해 친목을 굳건히 다져왔다"고 전제한 뒤, "매년 포럼을 통해 단사의 상황뿐 아니라 양국 노동계의 고민과 동아시아 통신시장의 고충에 머리를 맞댔고, 이러한 건설한 논의는 동아시아 통신노조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통신·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자 실무진이 적극 정보교류에 나선 점은 매우 의미있는 행보"라고 높이 평가했다. NTT노동조합 노다 사무국장은 "사전에 많은 질문과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꼼꼼히 준비해 주신 KT노동조합 정운모 위원장님과 조합간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끝으로 양 노동조합은 향후 지속적으로 실무 정책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KT노동조합은 "한국 역시 연금수급연령과 실제퇴직연령간에 최소 8년간의 차이가 있어, 노동계는 끈질기게 정년연장을 요구했고, 아마도 올해는 논의가 가시화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KT노동조합은 11대 정운모 위원장 핵심공약으로 정년연장을 내세운 만큼, 올해 단체 교섭을 통해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록, 현재는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안착되면 60세 이후 재고용이나 65세 연장에 대한 요구도 시작할 것"이라 전망했다.



2013년 복지제도 개선사항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3년 경조사비를 상향하고, 상호부조와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조금 단일화 및 지급제도 개선을 합의했다. 또한, 구)KTF 본인 학자금 제도는 폐지하고 인재개발원의 학위파견과정(선발)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 단체보험 및 의료비 지원제도 변경

- ① 재해장애에 따른 보상 수준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 ②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은 직원 본인 입원으로 한정하며, 직원 본인 통원 및 가족 입원·통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가족 합산하여 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원. 단, MRI/CT촬영비는 본인 부담액의 30%를 지원

■ 건강검진 선택권 부여

- ① 선택적복지를 확대하여 건강검진포인트를 부여하여 검진시 본인이 정산
- ② 선택권 부여 방법
 - 직원의 최소 검진(A형) 비용은 의무 검진
 - 연령에 따른 B형, C형 대상자가 A형 또는 B형 검진시 잔여 포인트와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은 자율사용 가능

■ 경조사비 지급기준 단일화

- ① 경조사비 지급기준 금액단위 : 만원

구분	결혼		출산			회갑	칠순	사망	
	본인	자녀	첫째	둘째	셋째			자녀	부모
현행	kt 50	30	20	50	100	30(택일)		50	50
	kft 90	80	20	20	50	30	30		
개선(안)	50	50	100	100	150	30(택일)		50	50

※ 결혼은 상호부조(지급 사유당 500만원/총 2회 한해 지급)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자녀/부모 사망의 경우 상호부조와 중 복지급 해소를 위해 상호부조만 지급하되, 상호부조 수혜범 위 2회 초과 시에는 경조금에서만 지급함

■ 구)KTF 본인 학자금 지원제도 합리화

- ① 학위파견 과정으로 일원화. 단, 현재 진행중인 과정은 졸업/수료전까지 학자금 지원

※ '2013년 복지제도 변경 사항' 및 '1월 현재 KT복지제도 현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상반기 신입사원교육 실시

KT노동조합은 2월 4일(월)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277여 명의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신입사원 특강'을 실시했다.

신입사원 특강은 단체협약 제37조에 의거 신입사원교육 시 2시간 이상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교육도 ▲KT노동조합 역할 동영상 시청 ▲노동조합 구성과 조직소개 ▲ KT복지제도 설명 ▲상조지원서비스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KT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간 주요행사 △일상 조합활동 △연대활동 △홍보 및 봉사활동 △기업간 노사협의체 UCC 활동 △통신3사 노동조합협의회 등 주요활동들을 소개했다.

이번 특강에서 정윤모 위원장은 조합원이 된 신입사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KT노동조합은 10여 년 전만 해도 강성노조의 상징적 모델이었으나 통신환경이 빠르게 변하듯, 노동운동도 급변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역할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노동조합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합 본연의 임무인 조합원 고용안정과 복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기존 KT 내에서는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에 못 미쳤으나, 이번 신입사원 중 여성비율은 43%에 이른다"며 "앞으로 여성 인재들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정윤모 위원장 및 조합간부들의 역할, KT노동조합만의 강점, 단체교섭 같은 노사협의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 제1차 전국 조직국장 회의 개최



KT노동조합은 1월 28일(월)~29일(화) 대구 지방본부에서 2013년 제1차 전국 조직국장 회의 및 수련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전국 조직국장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열린 전국 산하조직 대표자회의 안건에 대한 공유와 2013년 조직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 각 지방본부별 현안사항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KT노동조합은 1월 28일(월)~29일(화) 대구 지방본부에서 2013년 제1차 전국 조직국장 회의 및 수련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전국 조직국장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열린 전국 산하조직 대표자회의 안건에 대한 공유와 2013년 조직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 각 지방본부별 현안사항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 2013년 제1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 개최

KT노동조합은 1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일정 공유, 현안사항 보고,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대회를 시작으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전국 대의원대회나 축구경기 같은 정기 행사뿐 아니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도 서둘러야 한다"며, "연초 어수선한 현장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반기 주요 일정인 ▲전국 조직국장회의 및 수련회 ▲2013년도 지방대회 ▲일부 지방장 보궐선거 ▲2013년도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상반기 신입사원 교육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2013년도 전국대의원대회 ▲위원장기 축구대회 ▲합동추모제 ▲2013년 단체교섭에 대한 향후 일정 및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소통중심의 현장조합활동 강화 ▲지방본부별 권역회의 활성화 ▲장제용품 개선 및 결혼 축하환 지급 ▲2013년 복지제도 변경사항 ▲GB 올레 인센티브 운영계획 및 전사 프로모션 ▲그룹교류 활성화 방안 ▲조직개편 같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루머확산 차단 등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했다.

특히 현장활동 강화의 방편으로 △위원장 조합원격려 현장방문 지속추진 △지방본부별 담당제를 통한 주기적 교류 활성화 △현장지도를 통한 자발적 조합활동 정착유도 △지방본부 및 지부 조직점검 및 관리지도 △중앙본부 지침 이행 실태 및 정보전달 여부 확인 △지부별 조합계시판 활용실태 및 일일소식지 홍보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황성관 사무총장은 "11대 집행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통을 기조로 활발히 활동하며 현장 속으로 파고들 것"이라 강조하며, "12개 지방본부도 중앙의 방침이 원활히 현장에 흡수되고, 현장의 바람 또한 신속히 중앙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무급휴일근무근절 및 GB 기본원칙 준수 점검강화

KT노동조합은 중앙상무집행위원 회의를 통해 2013년 새해를 맞아 무급휴일근무 근절 및 GB프로그램 원칙준수를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정윤모 위원장 뜻에 따라 지난해 현장안정화를 위한 핵심활동으로 무급휴일근무 근절과 GB프로그램 원칙준수를 위해 현장점검을 수 차례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사와 적극 협의, 현장안정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

나 새해들어 일부 현장에서 원칙과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조합은 초기에 원천봉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 위원장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다시 한번 무급휴일근무 근절과 GB프로그램 원칙준수에 대한 조합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성관 사무총장은 "해가 바뀌어도 조합 의지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따라서 KT노동조합은 ▲무급휴일근무 근절 ▲2013년 GB프로그램 기본원칙 준수 이행실태 확인 ▲인사평가 전 변칙적 영업활동 및 노사 합의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방본부, 지부, 열린 위원장실 등을 통해 현장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 KT노동조합 창립 31주년 기념 사랑나누기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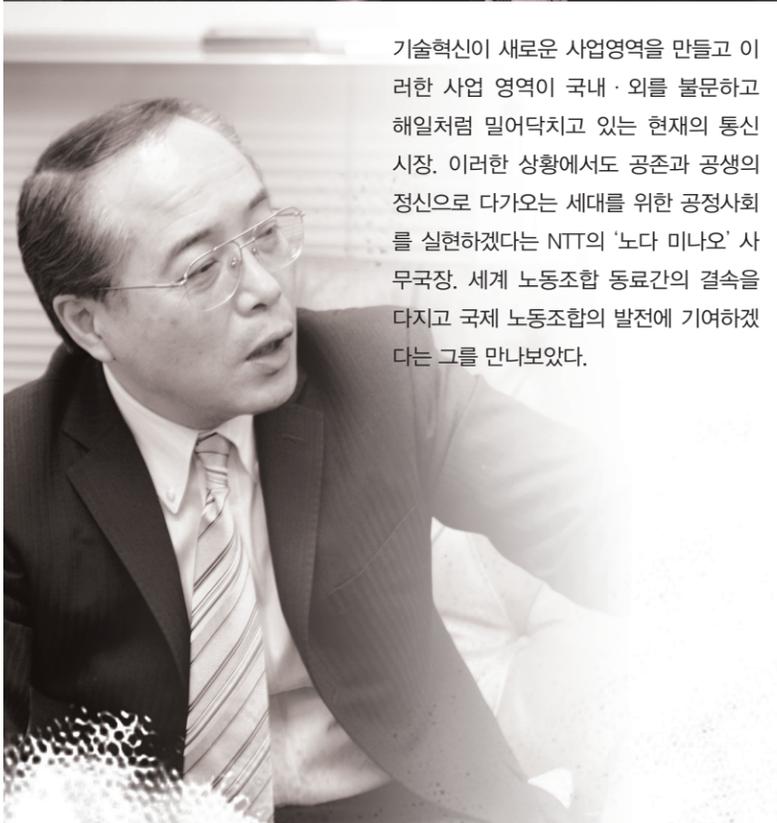
KT노동조합은 2013년 1월 3일(목)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한 사마리아원'을 찾아 불우 어린이 및 청소년(75명)을 위한 '사랑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는 KT노동조합 창립(1월 6일) 3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한 것으로,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 조합간부 42명과 KT IT(경기동부)서포터즈 10여 명,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중오 선수 등이 함께 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훗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내일의 일꾼들"이라며, "지금은 넉넉지 않은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당당하게 살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중오 선수는 사인회에 앞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국가대표 선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다"며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정윤모 위원장, 진중오 선수의 멘토링과 사인회를 시작으로 8대의 LED TV 기증식을 가진 뒤, IT서포터즈의 아이패드 시연회와 축구경기 및 눈 치우기, 떡국 배식 순으로 진행됐다. IT서포터즈는 시연회에서 아이패드 사용법을 가르치고, 적성검사 어플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KT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결손아동 후원뿐 아니라 장학사업, 환경운동,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



21세기 노동운동 키워드는 '공존과 공생'이다

NTT노동조합 사무국장 '노다 미나오' 인터뷰



기술혁신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고 이러한 사업 영역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해일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시장.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존과 공생의 정신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NTT의 '노다 미나오' 사무국장. 세계 노동조합 동료간의 결속을 다지고 국제 노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를 만나보았다.



NTT는 일본 최대의 전기통신사업자로 사원수, 매출액, 자산 등이 탑 클래스에 랭크 되는 거대 기업이다. 85년의 통신자유화에 의해 공사에서 민간회사 NTT로 다시 태어났다. 통신자유화에 의해 시장에 들어온 신규참여사업자와의 경쟁, 기술혁신이 일으킨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네트워크 구축 등 변화가 심한 통신분야에서 NTT는 여전히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Q KT조합원들의 이해를 위해 NTT노동조합의 시스템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자면?
NTT는 중앙본부·기업본부·총지부·분회라는 4개의 조직을 설치하고, 각각의 조직이 그 기능에 근거하여 노사의 과제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NTT노동조합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퇴직자 모임'이라는 조직을 통해 현역과 함께 여러 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NTT를 퇴직하는 사람의 70% 정도가 회원이 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NTT노조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NTT노조는 현재 61명의 변호사와 계약하여 'NTT노조변호단'을 조직하고 있다. 조합원과 임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과 관련한 학습회 개최와 노동법 제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조합원이 무료로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의 상담 건수만 총 2334건이었다. 이 활동도 NTT노조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조합이 가지는 3대 기능의 하나인 '상호부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통신산업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을 설치하고 복지활동의 충실 역시 도모하고 있다. 조합원이 평생 안심하고 안전하도록 기여하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재작년의 '동일본 대지진'때에는 막대한 공제금과 지원금이 지출되었으며,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으면서 복지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다.

Q 조직원 수가 많으면 그 만큼 단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조합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KT노동조합이 노보를 발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NTT노조신문'을 발행한다. 매주 30만부의 신문을 발행하고 퇴직자 모두를 포함한 전 조합원의 자택으로 발송하고 있다. 일일이 개별 발송을 하다 보니 분명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노보는 조직의 움직임을 전달 한다는 기본적인 목적과 함께 위기 관리에도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일례로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조합원·퇴직자 가족의 신속한 안부 확인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Q 노동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NTT 같은 거대한 조직을 끌고 가야 하는 노동계 간부로서 보람 못지 않게 힘든 점도 있을텐데.

취직한 직장에 '분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입사 2년째에 선배가 분회의 임원을 맡아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온 것이 계기였다. 마침 임원에 취임한 해가 4년에 한번 있는 '시의회의 원선거'의 해였는데, 분회에서 선출한 시의회의원의 선거운동을 1년간 담당할 것이 약 30년에 걸쳐 노동운동을 해온 원천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번에 KT노동조합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NTT노조의 임원이기 때문이며,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어려움과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노동조합은 사회적 존재(섹터)이며, 노사의 과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아니겠는가? 조직의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하고,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Q 이번 KT노동조합 방문 일정이 타이트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협의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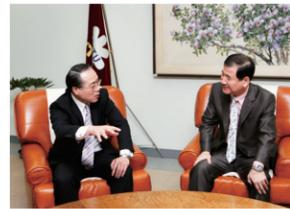
간단히 말하자면 '서로의 조직이 안고 있는 과제와 대응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활용한다. 그리고 양 조직의 우호를 깊게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특히 양 조직은 ICT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극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오늘 날 통신의 브로드밴드화와 IP화, 고정전화와 휴대전화의 융합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신 캐리어에 대치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브로드밴드·ICT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의 상황과 우호 조직인 KT노조의 대응에 대하여 배우고, NTT노조의 향후 활동에 활용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도정보화 사회의 실현을 향한 통신 캐리어로서의 공헌과 조합원의 고용확보와 노동조건 정비, 그리고 고용·인원정책의 확립 등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Q 일본은 지난 9월 정년퇴직연령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 고용안정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물론 일본 재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인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며, 청장년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와 교섭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일본에 있어서의 최대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이며, 세계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5년 이후 일본의 인구는 감소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노동력 인구의 확보도 큰 과제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3000만명을 넘어 4명 중에 한 명이 고령자이며 2050년에는 약 40%가 고령자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포인트는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것에서 '희망을 하면 65세까지의 고용을 확보해야만 한다' 라고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65세 정년을 의무화 한 것은 아니다. 일본도 이번 법개정에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은 일부이며, 아직은 대부분의 기업이 60~65세 정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NTT노사가 검토한 제도는 60세의 정년 연령은 그대로 두고 현행의 65세까지의 제도에 대하여 충실을 도모한 것이다.

Q 한국에선 약 1,000만 명의 비정규직(계약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도 적지 않은 계약직 사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본 사회, 노동계의 처우와 개선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일본의 비정규 노동자수는 1700만 명으로 고용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가 된다. 그리고 200만엔 이하의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1100만 명으로 생활보호 수급자는 212만 명이며, 이러한 격차 확대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NTT노조에서도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중점과제이다. 따라서 비정규 사원의 정사원화를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노동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번에 KT노동조합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NTT노조의 임원이기 때문이며,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



Q 세계 노동운동이 일종의 정체성 위기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쟁 중심의 조합주의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새로운 이념을 개발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노동계층의 지위와 복지 향상뿐 아니라, 기업성장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데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한·일 노동계가 취해야 할 중장기적인 기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일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안심 사회의 실현'을 노동운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보다 노동운동에 대해 더욱 많은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올해 70억 명을 넘는 인구는 2050년에는 90억을 넘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더더욱 '자기만'이라든지 '자신의 기업만'과 같은 발상은 바꾸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21세기 노동운동의 키워드는 '공존과 공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노동조합의 이념이 중요시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공존과 공생'의 노동운동을 펼쳐야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도 어필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거리적 문제, 언어, 이해 관계의 상충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국제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국제 협력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한데 노동계의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과 이점에 대한 견해는?

현재는 사람·물건·돈이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시대라서 노동자의 과제도 글로벌화 되고 있다. 즉 이제는 경영이든 노동운동이든 한 나라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NTT그룹도 최근에 사업의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약 800여사의 연결 자회사 중, 약 반수는 해외 자회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측에 대해서는 인재의 확보·육성과 기업 통합의 확립, 나아가서는 위기 관리 체제 확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각각의 국가에서 법률·관습·문화 등이 크게 다른 점을 인식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간의 연대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Q 스마트폰의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팟게스트와 같은 개인 모바일 방송이 유행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스마트폰 콘텐츠가 유행했었나? 또한 현재, 모바일 OS(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가 다양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통신 시장의 판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이 일본의 정보통신 시장을 변모시키고 있다. 향후 정보통신 산업의 키워드는 '컨버전스화, 클라우드화, 글로벌화 그리고 보안'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서비스의 디바이스 프리화와 OS 프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혁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가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경쟁의 격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능동적이며 유연한 사업전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통이야말로 조직 경쟁력과 상생의 비결”



충북지방본부 서청주지부

소통(疏通),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소통한다는 것은 한 쪽이 이해하고 양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소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직 구조의 시스템 속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리 없다. 일방적인 통보나 지시의 형태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일부 노동조합과 단체는 노동자의 고용과 복지 보호라는 순수성을 잃은 채, 노동계 해계모니 장악과 특정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노조', '계급투쟁', '노동해방' 등의 관성화된 언어로 점철된 그들만의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고 모호할 뿐, 생계를 위해 현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조합원들에게는 더 이상 와 닿지도 공감되지도 않는 이질적인 것이 되었다. 조합원, 넓게는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시민단체에 구걸하여 매스컴의 관심이나 타려는 노동계 일부 세력의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터'다. 민족해방이니 민중민주니 하는 낡은 정파적 그룹의 담합이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조간부의 모습이다. 또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나며 조합원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열린 소통이자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일 것이다.

疏通

정윤모 위원장, 충북지방본부 서청주지부에 가다!

변화와 함께 '소통'을 약속한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화), 2013년의 첫 현장순회 지역으로 서청주지부를 찾았다.

정위원장의 현장순회는 취임 초기부터 현장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창구로 활용해왔다. 정위원장은 먼저 관계자들에게 서청주지부의 지역 및 시장 특성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받고, 이내 곧 시험실로 자리를 옮겼다. 마침 시험실에는 서청주지부 특별기동팀의 박상곤 조합원

KT trade union

14
15



쉬운 점을 들어주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운을 띄운 후, '거리감을 두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개선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며 분위기를 이끌자 잠시 긴장감으로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방 대화 열기로 돌아올랐다. 정위원장은 '노동조합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비판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전제한 뒤, 언제든지 좋으니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의 '열린 위원장실'을 통해 건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여러분이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선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업무환경, 제도에 관한 것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불평해 주십시오”

정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보여주기식 단기활동을 철저히 지양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지속적 안정화를 위해 집중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KT조합원으로서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 약속

이날 간담회에서 서청주지부 소호고객팀의 김주승 조합원은 정위원장에게 “우리 지부는 이학승 지부장이 매일 아침 팀을 돌아다니며 공지사항을 전달해준다. 그러나 각 지부마다 지부장의 역할이 달라서인지, 일부의 다른 지부 동료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조합소식에 깜깜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조합원은 이어 “업무에 바쁘다 보면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제대로 숙지할 수 없을 때도 있으니, 복지나 인사 등의 중요 공지 사안은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방안을 더 마련해 주시면

이 호출에 따라 선의 고장 여부를 시험하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정위원장은 ‘예전에는 폭우가 몰아치거나 일기가 나쁠 때에는 시험실에 종종 고장이 나서 불시에 호출이 오곤 했다’며, 박 조합원의 설명에 따라 주배선반(MDF : Main Distributing Frame)상의 번호를 하나하나 시험대와 연결하여 주배선반(MDF) 및 점퍼선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등 잠시나마 시험실의 작업을 직접 실행해 보기도 했다.

약 30여 분 간의 시험실 시찰을 끝낸 정위원장은 서청주지부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위해 조합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정윤모 위원장이 ‘노동조합과 위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어려움과 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모습, 또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조합원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열린 소통이자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이다.”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윤모 위원장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만큼 중요한 것이 ‘알 권리’라며 홈페이지나 소식지 외에도 조합소식이 현장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CER팀의 전혜주 조합원은 “지난 해 11월에 서청주지부 가정플라자가 오픈하였다. 노동조합에서 많이 신경 써주고 도와 준 덕에 또 하나의 프라자가 오픈하게 되어 서청주지부 조합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전 조합원은 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의 현장 방문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가깝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올해는 더욱 왕성한 현장순회를 펼쳐 우리 조합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더욱 마음을 써달라”고 바램을 피력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12년, 12개 지방본부와 130여 곳의 소속지부에 현장순회를 다니면서 섬 없는 변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을 만나 소통해왔다.

연중 행사로 특별한 날에만 본부나 지부를 방문해서 수직적인 보고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활동이라는 것이 정위원장의 평소 지론이다. 앉아서 지시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관례나 중첩, 상충되는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도 절대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지난 해 무급휴일근무근절, GB원칙 준수 등 현장의 애로사항 척결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정위원장의 이러한 현장 밀착형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말하기 보다 경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위원장 되겠다’

같은 날, 조합원 간담회를 마친 정윤모 위원장은 충북지방본부로 자리를 옮겨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과도 가감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정위원장은 “만약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조합원들이 아무 말 없이 참고 넘긴다면 그것은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냉소, 그리고 노동조합에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며,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현장 조합원 한 분 한 분들을 더욱 살피고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장에서 보시기엔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나 역시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자문해 보곤 한다” 며 “자기 검열 끝에는 늘 아직도 아쉬운 점과 부족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지만, 결론은 우리 조합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였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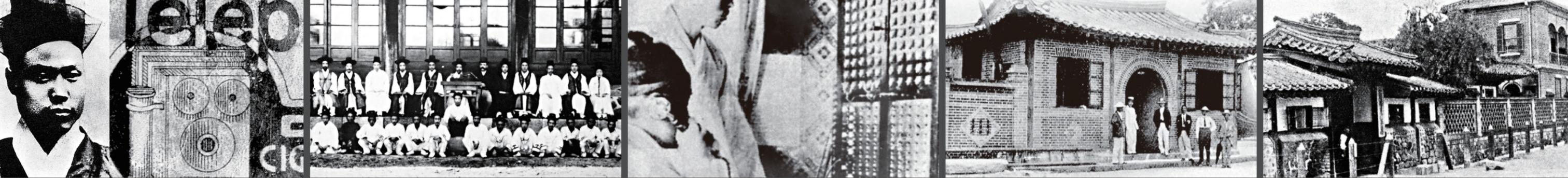
조합간부들에게도 조합원에 대한 책임감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합간부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노동조합의 거울’이라며 ‘수동적으로 지시만 따르지 말고 먼저 현장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라. 그것이 조합간부의 의무’ 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합원과 현장 모두의 신뢰와 믿음을 견고히 쌓기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윤모 위원장이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의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 이후 정위원장은 꾸준한 순회 행보를 통해 KT노동조합 현장뿐 아니라 각 그룹사 노동조합을 모두 순회하여 그룹전체 애로사항을 모두 경청하고 하나의 힘을 견지할 수 있도록 힘썼다. 집행부 기조인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정위원장이 몸소 소통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날의 지부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조합일상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 구호에만 그치던 ‘조합원을 위한’ 정책은 11대 집행부가 폭 넓게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힘씀으로써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소통이야말로 조직 경쟁력과 상생의 비결



①

기획특집 연재 ① 소식지 '길'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달사를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다리퐁’에서 ‘스마트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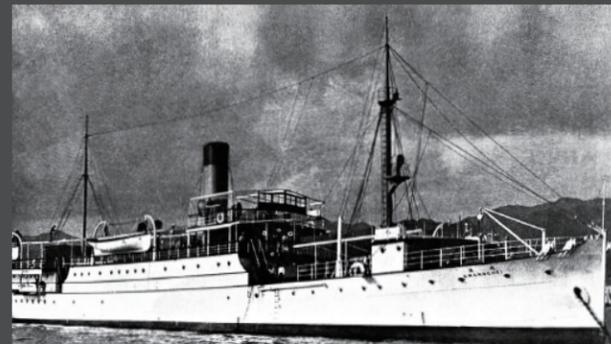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한 정보통신의 발달사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역사가 어느덧 한 세기를 훌쩍 넘었다. 지금은 세계 속에 IT 강국으로 통하는 우리나라지만, 정보통신의 역사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 분야 역시 어둡고 가난했던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와 함께 했던 셈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희노애락과 함께 했던 정보통신의 발자취를 들여다보자.

근대 초창기 정보통신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통신이 도입된 것은 1885년 9월 한성전보총국이 출범하면서 부터다. 한성과 제주포 즉 서울과 인천 구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신업무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10년 뒤 전화가 도입되어 이듬해 조선 왕실 궁내에 자석식 전화가 개통됐다. 당시 전화기는 다리퐁(爹釐風), 덕률퐁(德律風), 득률퐁(得律風)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텔레폰(telephone)의 중국식 음역이었다. 또한 '말 전하는 기계'라는 의미로 어화통(語話筒), 전어통(傳語筒), 전어기(傳語機)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했다. 초창기의 전화가 궁내부를 중심으로 가설되다 보니 왕실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많았다. 초창기의 전화는 감도가 매우 나빠 그 소리가 마치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같아 나이 든 사람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면 주위에 있는 관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거나 통화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아예 밖으로 나가 버렸다고 한다. 고종은 특히 전화를 애용했다고 전한다. 고종이 승하했을 때 왕위를 막 승계한 순종은 고종의 능에 전화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통하여 곡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의 어머니는 궁중 교환원이었다. 교환원으로 일하다 19세에 의친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다. 미국 유학파였던 의친왕은 한참 어린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

⑥



②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근대통신의 발자취
1882년 우정사 설립부터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까지 100년의 역사

1

초대 우정사 협판 홍영식
1910년대에 만들어진 '전화'표 담배

2

새로 도입된 전신기를 두고 모인
통신원 관원들

3

전화 도입 초창기의 남자 전화교환수

4

1902년 최초로 전화업무를 개시한
한성전화소 전경

5

한국통신사무인계중양감독부



⑦

③



6

한국통신사무인계심득 및 경성우편국 청사

7

최초로 무선전신을 성공시킨 대한제국 군함
광제호

8

나진우편국 및 1930년대 전화번호부

9

1946년 4월에 열린 경성지방체신국의 관내
우편국 소장회의

10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체신부의 초대 간부

⑧



④

1902년 3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일반 전화선이 드디어 개통됐고, 한성전화소는 최초 13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일제에게 통신사업권을 빼앗기게 되어 독자적인 통신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통신권을 강탈한 일제는 통신을 대륙침략 도구와 식민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식민지 시절 당시 전화 사용자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기에 교환원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전화교환원은 조선 여성이 채용되기 매우 어려운 이른바 전문 직종이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일본말로 “남방(なんばん·뭇번)?”이라고 엉무새처럼 물었기 때문에 '미스 남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해방 후 자유당 시절에는 전화 사용자에 대한 말씨가 곱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환원이 구속되기도 한 사건이 있었다. 발부된 영장에는 '교환 작업의 고의적 기피 지연'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곧 9일이 지나 교환원은 석방됐으나, 석방의 대가로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이후 전화 교환원은 자동교환기가 도입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 갔다.

‘청색전화’와 ‘백색전화’

광복을 맞이했지만 한국전쟁을 치른 후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전화대수는 12만대에 불과했다. 한국전쟁 때 파괴된 전화시설의 복구에 급급해서 전화시설을 확장해 나갈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제1차 통신사업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화가 보급되었다. 이 시기동안 21만대의 전화가 보급되었다. 이후 통신사업은 발전하여 1975년에는 100만대의 전화가 보급되었다. 급속한 발전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사회 경제적으로 도약을 이루던 시절이라 전화 적체가 심해져 전화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전화 1대에는 엄청난 웃돈이 붙어 전화상들의 농간이 심했고, 비싼 전화 구입비용으로 인해 전화 임대업이 성행했다. 당시 서울 시내에만 전화상이 600여 개나 되었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들지만, 전화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다. 전화 1대에 보증금 5~10만원, 거기에다 월세 2~3만원을 받았다. 대부업자들은 전화가입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정부는 1970년 9월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였다. 매매와 양도가 가능한 백색전화와 매매 양도가 불가능한 청색전화 시대를 맞이하게

⑨



⑩



11



12



13



14



15

된 것이다. 이 명칭은 전화가입사항을 기재하는 원부의 색깔에서 유래한 것인데 청색 전화는 청색원부, 백색전화는 종전의 백색종이 그래도 두었기에 백색전화였다. 하지만 청색전화제도가 실시되자 백색전화 값이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청색전화를 신청하면 2~3년을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전화 수요는 많았지만 공급이 적어 전화 1대 값이 260만원까지 치솟았다. 웬만한 서울 시내 집값보다도 비싼 금액이었다. 때문에 전화는 돈 주고 사기도 무척 어려웠다. 그래서 전화는 재산목록 1호에 올릴 만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화수요가 더욱 급증하자 전화 적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전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권력기관에 청탁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병폐가 만연한 것이다.

다양한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

1971년 3월에는 서울 부산 간 장거리자동전화(DDD)가 개통됐으며, 1975년 11월에는 가입전화 시설이 100만 회선을 돌파하는 등 정보통신의 발전도 함께 이어졌다. 1978년 전자식 교환기를 들여오면서 비로소 전화 적체 현상도 줄기 시작했다. 1986년 세계에서 10번째로 디지털식 전자교환기(TDX)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면서 전화가 특권층의 전유물에서 서민의 통신수단으로 거듭난 것이다.

한편, 전화가 귀했던 시절에는 공중전화야말로 서민들의 애용품이었다. 우리나라에 공중전화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00년대였다. 이 시기 공중전화는 자석식 방식으로 교환원을 불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준 후 원하는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방식이었다. 1962년 7월, 산업박람회장에 옥외 무인 공중전화기가 처음 선보인 이후 1966년 서울 시내 중심가에 공중전화 10대가 설치되었다. 전화요금은 1통화당 5원이었다. 1969년 최초의 국산 공중전화인 체신1호 공중전화기가 선보인 이후 공중전화는 많은 서민의 사랑을 받았다. 1982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시내외 겸용 DDD 공중전화기 나오고,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카드식 공중전화기도 등장하는 등 공중전화는 우리 일상 속에 보편화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혁신적인 진보가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대체되면서 전자교환과 광통신시대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

II

한국전쟁 당시 임시로 사용된 체신부 청사 (대전)

12

1950년대 광주전신전화국

13

전화기설 작업 광경 및 1960년 2월 서울중앙전화국 영등포분국에 시찰 나온 이승만 대통령

14

1969년 8월에 열린 전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입자 간담회 및 1968년 M/W 중계소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15

1971년 3월에 최초로 개통된 서울 부산 간 장거리 자동전화



16

초기 데이터통신용 모뎀 장비

17

1970년대 공중전화 부스

18

우리나라는 1977년에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연합체 (APT)에 가입

19

한국통신기술연구소 현판식

20

한국전기통신공사 현판식 및 사옥



16

17

18

19

20



2013년 새정부의 주요 노동현안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속 노조법 개정 여부 등 각종 현안 산재

2013년은 '신정부'하에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업계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에도 비정규직 문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노조법 개정 등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노동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주요 노동관련 현안을 짚어보자.



정년연장 논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2012년에 이어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2008년 '공무원 정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전 직급이 60세 정년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예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60세 정년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임금부담을 늘리고, 청년고용을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고령자와 청년 사이의 고용 대체 문제를 극복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임금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높다.

정부 역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청년의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정년 연장시 임금시스템의 혁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강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정부가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적어도 공공부문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선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억제하거나 민간기업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저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및 통상 임금범위 확대 문제도 2013년 주요 노동현안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해 2013년 최저임금을 2012년 보다 6.1% 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2013년 적용 최저 임금(시급 4,860원) 인상이 높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안이 모든 사업장에서 다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해 중소기업 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가 인상안이 높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체 고용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임금 평균의 절반에도 역시 미치지 않는 적은 액수다.

노조법 개정

올해는 복수노조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2013년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 하는 해이다.

현행 노조법은 3년마다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 역시 근면위 논의를 통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약속한 바 있으나 "노조전임자 문제를 중전처럼 노사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있어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완화되는 수준에서 노조법 관련 논란이 봉합될 여지가 커 보인다. 반면 복수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단결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오히려 어용노조를 양산하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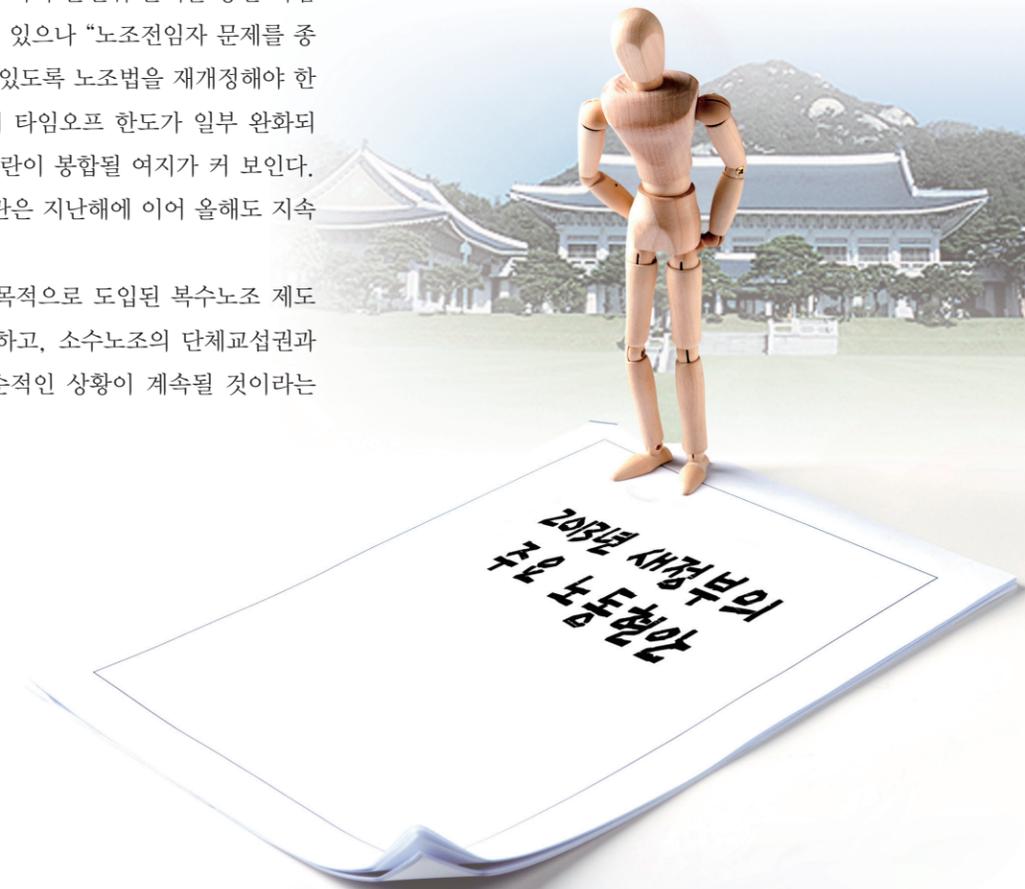
정리해고 요건 강화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만큼 경영상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 문제도 입법논란의 대상이다. 이미 관련 법적 통제 강화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다.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회의 일자리 창출·유지능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용 위기가 증폭되고, 현재의 양극화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단축과 사내하청 문제, 재벌 규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전망이다.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말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새정부의 노동입법 과제는 근로자의 근로 3권 보호와 기업활동 자유라는 양자의 이익과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정파 갈등, 성추문, 부정 부패 등 잇단 악재로 흔들리는 민주노총

한국 노동계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995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미 식물조직이란 극단적 진단마저 나오는가 하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망' 할 것이란 절박한 목소리가 민주노총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흔들리는 민주노총,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노총이 어수선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가 부정·대리투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민주노총 산하 김동조 제주본부장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그는 "제55차 대의원대회 투표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부정·대리투표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55차 대의원대회에서 '2013년부터 임원 직선제를 시행한다'는 규약을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이번 부정파문이 일어난 투표는 이 규약, 즉 3년 유예안에 관한 '찬반 투표'였다. 이의를 제기했던 김동조 제주본부장은 첫째, 대의원 40여명이 위임장 없이 대리 투표한 점. 둘째, 대의원 명단을 바꾼 점. 셋째, 참가명부에 서명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한 점 등을 부정투표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실제 이날 투표에서는 불과 8표차로 직선제 유예안을 가결 시켰다. 임원직선제는 민주노총이 조직혁신 과제로 2007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예를 주장했으며, 따라서 임



ISSUE

원직선제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연기돼 왔다. 결국 일부의 강력한 이의 제기에 민주노총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거나 투표권 없이 투표한 사람이 28명으로 확인됐다'며 직선제 유예 투표를 무효처리 했다가, 온갖 잡음 끝에 지난 24일에야 직선제 시행을 2년 늦추는 유예안을 간신히 가결했다. 부랴부랴 급하게 진화는 했으나 이번 사태는 가히 민주노총의 굴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투표 논란까지 불려온 이번 사태의 바탕에는 민주노총 내부의 뿌리 깊은 정파 갈등이 깔려있다. 민주노총에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좌파적 성향이 강한 '현장파'와 대중적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국민파', 둘 사이에 위치한 '중양파' 등 크게 세 종류의 정파가 있다. 이번 부정 투표 의혹 역시 임원 직선제를 주장한 현장파와 국민파 일부인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유예안을 지지하는 국민파 사이의 갈등이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2005년과 2008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부정선거 시비로 얼룩지게 되는 오욕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 민주노총의 굴욕과 잡음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8년, 소속 간부의 전교조 여교사 성폭력 미수 및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노동계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것은 물론, 2005년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비리사태는 노동계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을 개탄케 했다.

빠져린 자기성찰과 반성으로 내부 조직 추스려야

민주노총은 누가 뭐래도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을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던 조직이다. 그 덕에 노동자 권리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 노동사에 한 획을 담당할 만큼 커다란 기여와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립 초기에만 해도 민주노총의 과격함과 편향됨을 지적하는 시각은 있었을지언정, 민주노총 이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시각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는 정작 민주 노조의 도움이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 등 소외 계층 보다는, 힘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업 종사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 대한 의분 보다는 과도한 정치 투쟁과 내부 정파의 헤게모니 장악에 영합하는 모습에 조합원들의 대거 이탈 또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KT노동조합이다. KT노동조합은 국내최대 통신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과 15년을 함께 했으나, 지난 2009년 7월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5%의 찬성률로 민주노총을 전격 탈퇴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이 '극단적인 대립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조합원의 실익을 중시하는 조합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공표하고, 나아가 전체 통신 노동자들과의 단결과 연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KT노동조합은 현재 중도개혁노선에 기반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 노동조합, 농식품부 노동조합,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역시 민주노총을 속속 탈퇴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15년 간 계속 하락하여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노동계에 대한 여론의 악화가 이대로 확산된다면 노동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좋을 리 없다. 이제 민주노총의 쇄신과 재구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에 대한 사명감을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은 지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민주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근본적인 개혁과 빠져린 자기 성찰과정을 외면해선 안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전에 그랬듯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자기 기반을 흔들리며 끝내 와해되고 말지, 빠져린 반성과 변화 끝에 제2의 비상을 하게 될지는 결국 그들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



복지 100조 시대 개막! 증세 없이 가능할까

세계 각국에 부는 부자증세 바람

지난 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새해 첫날 복지 지출을 대폭 증액한 2013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올해 예산은 오히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증세 없이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줄여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증세 방식으로는 복지 공약 실현이 어려워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차원에서 전 세계가 추진 중인 부자증세 바람에 대해 알아보자.



'무늬만 증세'인 한국형 부자증세 안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최고 38%다. 지난해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이른바 '버핏세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편 새누리당이 내놓은 '부자증세'는 일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금융 고소득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증세' 방식에 한정돼 있다. 결국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지분 3%·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1조9500억 원이다. 올해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4500억원이다. 무상보육 확대와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당선인 공약으로 증가된 올해 예산이 2조4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만 2조원 가량의 세수입이 부족한 셈이다.

부자증세 논란, 프랑스 부유층의 조세 도피

2011년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재정적자로 고민하는 프랑스의 부유층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유럽 최고의 여성 부호인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정부에 청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최고 갑부로 꼽히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은 지난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해 '조세 회피'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도 부자증세에 반발하며 벨기에 망명길에 올랐다.

이는 프랑스 의회의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 구간을 신설하

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해 예산안 통과에 따른 것이다. 새 조세법은 올 1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랑스헌법위원회는 기존의 소득세가 가구별 부과 원칙인데 반해 새로 도입된 (75%) 소득세율은 개인별 부과로, 프랑스 세법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평등 결정을 내린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원회의 지적에 맞춰 개정된 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 부호들의 세금 도피처'로 부각된 벨기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벨기에 정부는 연 2만20유로 이상의 주식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자세'다. 또 증권 거래세율도 0.25% 인상하고 과세 한도 최고액도 650유로에서 740유로로 올렸다. '유럽 부호들의 세금 도피처'라는 오명도 부자증세에 힘을 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부자 증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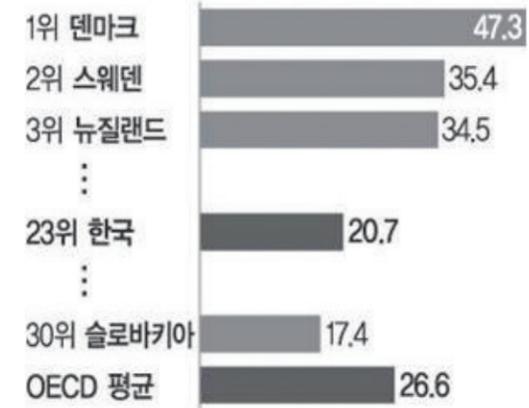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일명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는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이다.

워런 버핏은 2011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은 17.4%에 불과한 반면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의 평균 세금은 자신의 두 배가 넘는 36%에 이른다며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지난해 말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구나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했다. 일본도 새로 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한 데 이어 상속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빈부격차가 심하기로 유명한 인도에서도 부자증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인도의 최고 소득세율은 30%로 지난 1997년 이후 그대로다. 인도에서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들은 하위 10%보다 12배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소득 격차가 지난 1990년

대의 6배에 비해 두 배나 벌어진 셈이다.

OECD 국가 조세부담률 비교 (2008년기준, 단위:%, 자료:OECD)



부자증세 왜 필요한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증세 바람이 90년대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세계 각국의 감세정책 후유증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기 전까지 서방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부자들의 세율을 낮춰 소비와 경기를 진작시키는 친시장주의 정책을 따랐다. 그러나 각종 감세 정책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재정위기의 단초가 됐다.

부자증세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는 복지확대라는 공약 실현에 맞춘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증세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항 목	현 행	기재위 의결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	4000만원	2000만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	2500만원
법인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11%, 1000억원 초과 14%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감면전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 35%, 3000만원 초과분 45%
탈세제보·은닉재산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1억원	1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남들이 몰라줘도 끈끈하게 “엔지니어의 고집이 결국 해 냈습니다”

강북네트워크운용단 무선운용센터 엔지니어링4팀

기술자들이 사고하나 치고 말았다. 국립공원 산꼭대기, 그것도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에 LTE를 개통했다. KT무선네트워크, 아니 대한민국 통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 하나를 이룩했으니 대형사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해서 오늘 이 자리 이들의 박수와 함성은 천둥소리보다 우렁차고 당당했다. 이는 팀을 향한 아낌없는 축하였으며, 서로를 위한 격려였고, 스스로를 향한 긍지와 자부심. 그것이였다.



강북엔지니어링4팀 류연길 조합원

강북엔지니어링4팀 박상훈 조합원

2013년 첫 액션스타로 선정

지난해 11월 올레스퀘어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한 설악산 대청봉과 올레스퀘어 간의 HD영상통화 시연회가 있었다. 대청봉의 성공적인 LTE개통을 자축하는 KT임직원들과 고객들,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함께 기뻐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개통의 주역들, 강북엔지니어링4팀이다. 이들은 대청봉 LTE 구축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득하고, 대청봉을 열 번이나 오르내리며 완벽한 LTE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 왜 하필 설악산 대청봉인가라는 궁금증에 대해 당시 진행의 밑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개통 조정 작업을 진행했던 최적화 담당 류연길 조합원은 이렇게 말한다.

“해발 1708m의 설악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연간 등산객만 380만 명 이상이고요. 이런 상징적인 곳에 저희 KT LTE WARP만의 빠른 속도를 많은 등산객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청봉에는 현재 타 통신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LTE DU, RU를 모두 설치해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단연코 우위를 점하고 있다. SKT의 경우는 기존 3G 중계기에 LTE모듈을 장착해 SISO만 가능하고, LG U+의 경우는 속초 일성콘도에서 RF로 서비스 중이지만 그 품질이 이

용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KT는 1986년 11월 대청봉에 일반 전화기를 설치한 데 이어 1995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태양열 공중전화기를 설치했지만 2006년 태풍으로 인해 통신서비스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듬해 2007년 음성 및 영상통화,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WCDMA(광대역코드분할접속) 기지국을 설치했고, 2012년 11월 드디어 LTE WARP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이어 2013년 1월에는 WI-FI 서비스까지 개통하였다. 이로 인해 KT는 LTE 후발 주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 KT가입자들은 우수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 덕에 타사 가입자들의 부러움마저 사고 있다.

영화 같았던 대청봉 개통작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건 모두가 짐작할 터이지만,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고도의 전략과 끈기가 필요했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과정에 돌입한 후 가장 첫 번째 난항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의 협의과정이었다.

“기존 설악산의 3G 기지국에 추가로 LTE장비를 개통하는 데는 전기공급이 문제였습니다. 소모전력 문제로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수없이 협의의 난항을 겪었어요. 대청봉 기지국인 중청대피소도 발전기로 전력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중청산장의 발전용량으로는 해당 통신시설의 수용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8개월 동안 십여 차례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기도 힘들었지만 만나면 세일즈맨 취급을 당하기도 했어요. 담당자는 ‘현 이통장비의 소비전력에 더 이상 추가 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하더군요. 이통사, 중청대피소의 소모 전력을 측정해 여러 번 제출하고 LTE시설 후 추가 소모전력 기획안도 제출하면서 정말 삼고초

이기현 조합원



엄태남 조합원



최성영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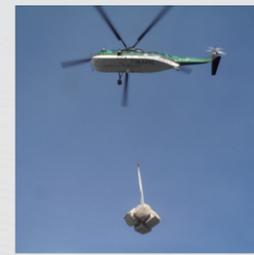
노일우 조합원



려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마침내 전력 추가 소요 없이 기존 3G 장비의 전력소모를 줄여서 LTE시설을 세우는 쪽의 시설추진승인이 났다. 설득한 지 8개월 만이다.
 이후부터는 마치 첩보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40명의 대규모 네트워크 인력을 투입해 개시 2일 만에 공사를 완료시켰다. 시설팀은 헬기로 약 30여명이 장비를 이송해 장비시설 및 개통을 진행했고, 최적화 담당조합원들은 헬기 자리가 부족해 직접 등반으로 대청봉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시설은 완료돼 협력사는 산을 내려갔지만 서비스는 아직 불가능했다. 다시 지상에 있는 시설팀 공사감독과 긴급 L3스위치를 공수하고 이를 세팅할 기량자를 찾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강풍도 막지 못한 집념이 이룩한 결실

설악산의 변화무쌍한 날씨도 엄청난 복병이었다. 함께 최적화를 담당했던 박상훈 조합원은 당시의 산행을 돌이키면서 고개를 설레 설레 저었다.
 “ALL-IP시연회 때였습니다. 팀과 협력사 등 8명이 등반할 때였어요. 후발대 두 명은 폭설로 아예 등반을 포기했고, 선발대는 정상 500m 앞두고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어요. 강풍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팀장님을 잃어버려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중청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몇몇 팀원이 동



상을 입기도 했고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극한의 기상 상황도 대청봉 LTE 구축을 향한 팀의 자존심과 집념을 꺾지는 못했다. 설계, 최적화, 운용, 시설, 시설사, 장비제조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푹푹 뭉쳐 순탄하고 성공적인 개통을 이루어냈다. 모든 과정에는 또한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 했다. 설악산 정상까지의 LTE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구축 및 향후 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했던 유선부문 강남엔지니어링단, 치악산 정상까지 11km, 속초 일성콘도와 대청봉 중청대피소에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이용한 전용회선 설치를 해결했던 시설팀은 든든한 지원군이자 협력자였다.
 힘든 과정만 기억에 남은 것은 아니다. 중청대피소에서 등산객들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나누던 소주 한 잔은 이들에게 어떤 술자리보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현재 대청봉에는 정상적인 LTE서비스를 위해 두 달 간격으로 중청대피소로 헬기를 동원해 경유를 주입하고 있어 전기선 등으로 인한 경관 저해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언젠가 설악산을 오를 때는 아름다운 풍광과 동해의 일출을 가족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즐기는 기쁨을 누리보자. 그리고 이를 가능케 누군가의 노력을 한번쯤 생각해보자.
 2013년 첫 액션스타 트로피를 손에 꼭 쥐고서 이후선 팀장은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다. “추위와 싸우면서 대청봉 개통에 최선을 다한 분, 아래에서 지원 했던 분, 또 관계자들. 모두가 협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명예로운 이 상에 또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2013년. 파이팅!”

최희동 조합원



사공휴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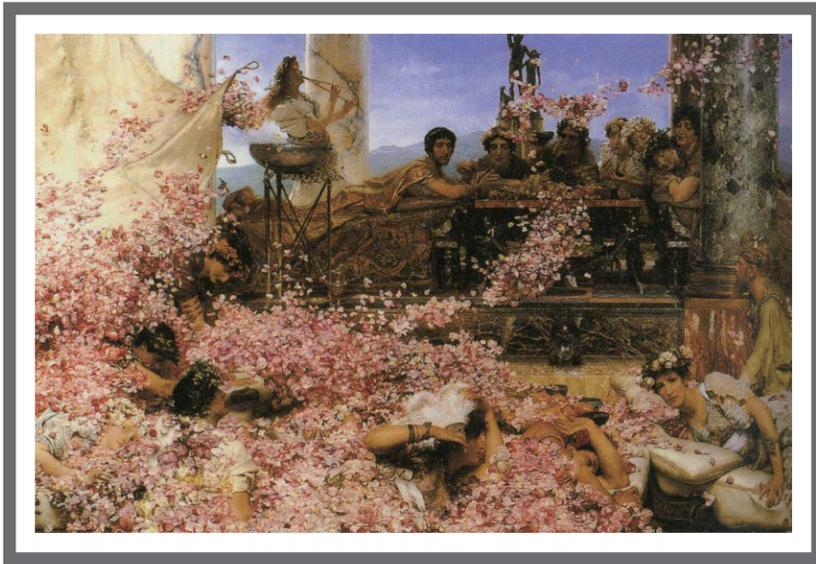
김승겸 조합원



안승필 조합원



당신은 존재만으로 향기롭다



로렌스 알마 타데마, [헬리오가발루스의 장미], 1888

하루에 두 번 향수를 뿌리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의식이다. 아침에 뿌리는 향수는 코를 자극하여 정신이 들게 만들어준다. 오후가 되면 몸에서 에너지가 빠지고 늘어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뿌리게 된다. 이제 습관이 되어서 향수를 잊은 날은 마치 카페인에 부족한 사람처럼 결핍감을 느끼게 된다. "이모는 향수를 무슨 커피로 알고 사용하는 것 같아. 향수는 잠에서 깨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뿌리는 거래." 이렇게 말하며 대학생이 된 조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향수를 하나 선물해주었다. 향수 이름이 '몽환(Euphoria)'이다. 조카의 말대로 향수 이름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언가 결핍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향수를 뿌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강박(Obsession), 영원(Eternity), 탈출(Escape), 모순(Contradiction), 그리고 몽환. 이 의미심장한 낱말들은 미국 캘빈 클라인의 향수 이름들이다. 현대인들이 무엇에 공감하는지 절묘하게 추출해낸 낱말들이다. 성공에 대한 '강박',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평범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현실과 이상 사이에 놓은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 그렇다면 '몽환'이라는 향수는 어떤 의미일까. 나의 일상이 너무나 무미건조해 보이니 쾌락의 환상에 도취되어보라는 뜻일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몽환의 향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하나 골라보았다. 로렌스 알마 타데마(Lawrence Alma-Tadema, 1836~1912)가 그린 [헬리오가발루스의 장미]이다. 꽃잎으로 가득한 이 그림은 보기만 해도 장미꽃 향기에 완전히 취해버릴 것만 같다. 알마 타데마는 고대 로마의 풍습을 즐겨 그렸던 영국 화가이고, 그림의 제목에 나오는 헬리오가발루스는 방탕하고 사치스런 유흥을 즐겼던 로마 황제의 이름이다. 그림의 중앙

에 앉아 장미꽃잎을 흩뿌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헬리오가발루스이다. 이 향연에 초대된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대로 흐드러지게 쌓인 꽃잎 속에 파묻혀 난고 파티를 벌였고, 황제는 그 자극적인 모습을 즐기면서 그들에게 꽃잎 세례를 퍼부었다.

이 그림처럼 꽃잎으로 뒤덮인 방이 생각난다. 눈처럼 하얀 방에 우윳빛 피부를 가진 금발 여인의 나체가 있고, 그 위로 선혈처럼 붉은 장미꽃잎이 환상적으로 흩뿌려진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속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꽃잎으로 덮인 방은 색채는 강렬하지만 실제로 꽃향기로 가득 차 있는 방은 아니다.

아메리칸 뷰티라는 이름의 장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줄장미 잡종인데, 특징은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은 없고, 보기에만 아름다운 이 꽃은 영화 전체를 통해 삶에 있어 향기란 어떤 것인지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인 중년의 남자는 가족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린 정말 행복했지요. 아내와 딸은 내가 엄청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이 옳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남자는 현재 분명 행복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데 결정적인 어떤 것을 놓쳐버린 상태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외적으로는 아무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알마 타데마의 그림 속 로마의 황제 역시 모든 것을 다 누리본, 어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자이다. 그런데도 인생의 참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쾌락에 의존하고 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의 주인공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후, 금기된 쾌락들에 자신을 내맡겨본다. 과거에 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갔던 것들 때문에 영영 행복을 잃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나이와 직위에 어울려서, 또 점잖아 보이기 위해 취향과 상관없이 선택했던 중후한 차를 팔고, 대신 오래전부터 한번 몰아보고 싶었던 낡고 유치한 빨간색 차로 바꾸었다. 그리고 인생을 골치 아프게만 하는 직장 일을 그만두고, 햄버거를 파는 단순한 일을 시작한다. 마리화나를 피워보는가 하면, 금발 미녀에 대해 황홀한 환상을 가져보기도 한다. 물론 그 여자가 딸의 친구라는 것조차 개의치 않고 말이다.

살아 있음 자체가 생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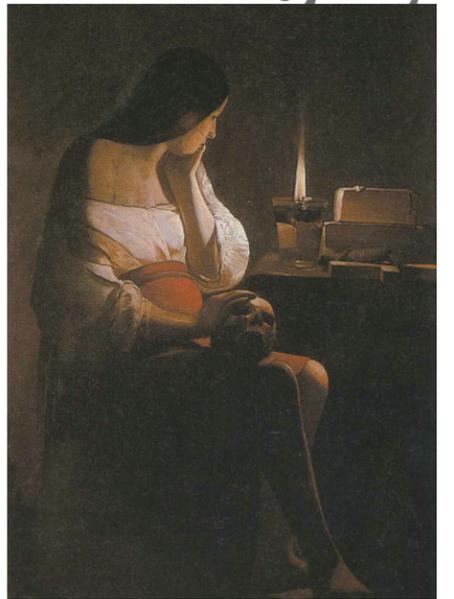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쾌락에 내맡긴 채 살며 점점 남자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무의미해진 이유가 금기된 것들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금발 미녀를 실제 유혹할 기회가 왔지만 남자는 마치 딸을 대하듯 타이르고 돌려보낸다. 젊은 여자를 안는다고 해서 인생의 덧없음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영화의 종결부분에서 남자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로 죽임을 당하고, 죽어가는 순간 비로소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보게 된다. 그가 놓쳐버린 것은 스치고 지나갔던 웃음들이었다. 아내가 장난치듯 웃던 모습, 어린 딸이 해맑게 아빠를 향해 웃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어리석게도 최후의 순간에서야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그는 얼굴에 깨달음의 미소를 지은 채 죽어간다.

서양에는 생의 헛됨을 주제로 다루는 그림이 많다. 바로크 화가 조르주 드 라 투르의 [등불 아래 참회하는 막달레나]처럼 해골이 나오는 그림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골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경고이다. 여인은 해골을 무릎에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린 채 타들어가는 등잔불을 바로보고 있다. 죽음에 임박한 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들여다보라는 뜻 같다.

한 순간 한 순간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의미가 된다. 생은 유한해서 덧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모르는 채 영동한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생명은 꽃향기로 가득한 방이다. 눈에 보이는 허울 좋은 아름다움을 좇느라 생명이 뿜어내는 진정한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향수를 뿌릴 때마다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출처 | 이주는 <그림에 마음을 놓다> 엘리스



조르주 드 라 투르, [등불 아래 참회하는 막달레나], 1640년경

“KT동우회”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KT동우회(www.ktdw.co.kr 회장 이광세)는 KT퇴직자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발족된 KT동우회는 정보통신 관련 지식보급, 회원복지증진, 친목도모 및 KT경영효율 증진활동 등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회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3,7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조직되어 있습니다. KT동우회는 지난해부터 회원 증대 및 복지향상에 더욱 힘을 쏟고 있으며 회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회원들에게 드리는 복지내용

- ▲ 경조사비 지원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2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10만원, 자녀결혼시 10만원
- ▲ 상해보험가입 : 가입보험료 전액 동우회에서 부담
- ▲ 자녀교육비 지원 : 고교생 15만원, 대학생 20만원 2012년 기준
- ▲ 의료비 지원 : 의료보험 수가 적용하여 10~20만원 지원
- ▲ 장수축하금 지급 : 희수(만77세), 미수(만88세), 백수(만99세) 10~20만원

- ▲ 자격증취득 교육지원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경매사 등
- ▲ 기타 교육비 지원 : 전화영어회화, IT/컴퓨터분야 온라인 교육 등

◎ 현직조합원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KT재직자들이 가입하면 '명예회원'이 됩니다. '명예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동우회와 재직자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회사 임직원 등 그룹사까지도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직 사원들이 동우회에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단, 가입비 2만원, 연회비 없음)

◎ '명예회원'이 되시면

- ▲ 동우회지 '향기로운 삶'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분기 1회).
- ▲ 퇴직자(동우회원)들의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ktdw.co.kr)
- ▲ 애사 시 일시에 회원들에게 메시지 통보, 정보전달(원할 경우)
- ▲ 퇴직 후 자동으로 정회원이 되어 복지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각 지역본부동우회 사무국

서울 : 02-452-0013	충북 : 043-265-0007	전북 : 063-224-5699	대구 : 053-654-8031
부산 : 051-461-0200	경기 : 031-239-0015	제주 : 064-725-3501	강원 : 033-765-4698
충남 : 042-253-4500	전남 : 062-232-0500	인천 : 032-866-6699	본회 : 02-755-2246

KTTU QUIZ

강북엔지니어링4팀에 의해 LTE WARP 및 WI-FI 서비스가 개통된 곳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은?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지난호 당첨자

정원환(IMO운용센터 서비스운영팀), 여호동(CRM운영본부 Segment마케팅팀), 황성재(무선운용센터 엔지니어링1팀), 박진순(SD본부 SM1팀), 이양호(영동지사), 김경희(대방지사 Mass1팀), 이원영(대구유선네트워크 인터넷망팀), 김광태(충청고객센터 기업A/S상담팀), 양동현(서안양지사 CS컨설팅팀), 송홍재(원주지사 고객지원팀)

(주)다운플랜 업무개선 및 서비스 이용안내

장제용품 품질 격상

KT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례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인 장제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2012년 1월 회사로부터 장제용품 업무를 다운플랜으로 이관하면서 품질을 아래와 같이 2단계 격상하였습니다.

구분	이전	1단계 격상	2단계 격상
기간	~ 2011년 12월	2012년 1월 ~ 2013년 2월	2013년 3월 ~
운영주체	kt	KT노동조합	KT노동조합
변경사항	없음	- 가장 수요가 많은 중간접시 50개 추가 - 비닐테이블보 200개 신규 추가	- 숟가락/젓가락 케이스 품질 향상 - 접시(대/중/소) 품질향상 - 치약(2개), 치솔(4개) 신규 추가

♣ 현재 장제용품에 포함된 항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1. 밥공기 : 400개 | 2. 국공기 : 400개 | 3. 종이컵 : 1,000개 | 4. 소주컵 : 400개 | 5. 숟가락 : 400개 |
| 6. 젓가락 : 600개 | 7. 접시(대) : 400개 | 8. 접시(중) : 500개 | 9. 접시(소) : 200개 | 10. 수저케이스 : 20개 |
| 11. 식탁보 : 200개 | 12. 치솔 : 4개 | 13. 치약 : 2개 | | |

(주)다운플랜 상품 “다운1호” 서비스 변경 안내

- 2013년 부터 물품비 및 인건비 인상으로 다운1호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다운1-13호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 다운1-13호는 버스만 300Km로 제한을 두고 나머지 서비스는 다운1호와 동일합니다.
- 2013년 부터는 다운 1-13호, 다운2호, 다운3호 가입이 가능하며
- 2012년 까지 가입하신 다운1호 회원님은 계약하시었던 서비스로 계속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다운플랜 콜센터 이용 안내

- (주)다운플랜의 대표번호(1577-1555) 이용시 아래 번호로 이용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례 행사 및 문의, 근조화환/축하화환 신청, 장제용품 신청은 **1번**
 - 웨딩 서비스 문의 및 신청은 **2번**
 - 신규 가입 및 해지 등 일반 문의는 **3번**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